

지역 소식통

김제시 - 이·통장 연합회

19일 간담회 개최

김제시는 19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19개 읍면동 이·통장 협의회장들로 구성된 이·통장 연합회(회장 양관용)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평소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을 대상으로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접어들어 사회환경에서 이·통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행정과 이·통장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과 건의사항 청취 등을 통해 시정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관용 연합회장은 "바쁜 일정에 이·통장연합회에 관심을 갖고 자리를 마련해준 김제시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통장 연합회가 주민복지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성주 시장은 "앞으로도 시는 이·통장 연합회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활동지원과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교육 실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9일과 20일, 오는 26일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와 백구농협에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GAP인증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신뢰도가 해마다 높아져 교육에 참여하는 농업인들 역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번 3일간 관내 농업인 300여명이 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GAP 인증기준 및 절차, 실천요령, 위해요소 관리기준 등 농업인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농가는 온라인 농업교육포털 누리집(http://agriedu.net)에서 GAP인증 교육이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를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063-540-451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군정 주요사업 추진 박차

유희태 군수 "공약사업 등 속도감 있게 추진·내년도 업무보고 준비 철저" 당부

유희태 완주군수가 19일 간부회의에서 민선 8기 군정 주요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내년도 업무보고 준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 군수는 이날 간부회의를 통해 "8월을 마무리하는 시점을 맞아 공약사업, 군정 100대 중점사업 등 군정 주요사업이 적시에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부서장 중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시 계속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부서별 여건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제12회 완주 와일드앤로컬푸드 축제를 한 달여 앞두고 "축제 각 분야별 실행계획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전년도 축제 운영 시 미흡했던 사항을 철저히 보완할 것"을 지시하며,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군·주민·중간지원조직간에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보건소내 진단 대응기구를 활용하여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실천사항 등을 적극 홍보해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실시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대를 적극 발굴하여 군 전입신고를 독려하고,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 수해 주민 위로금 추가 지급한다

위로금 9억3000만원 추가 편성... 19일부터 순차적 지급

유희태 군수 "주민들의 일상 복귀 위해 최선을 다 할 것"

완주군이 수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에 더해 재난 위로금을 세대별로 추가 지급한다.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3,878명에게 48억1,70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빠른 지급을 위해 금은 이달 초 예비비 39억7,000만원을 투입했으며 현재 계좌번호 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위로금은 피해조사 및 확정에 따른 세대별 재난지수와 재난지원금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재난지수 3,000 이하의 소규모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액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단계별(10만 원~50만 원) 위로금을 지급하고, 3,000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세대별 재난지원금의 20%를 산정해 위로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 대상 중 세대주 주소가 관외인 세대는 제외된다.

또한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건물 침수, 소상공인 중 지원대상 제외업종, 중소기업 등에도 위로금을 지원한다.

군은 이웃돕기성금 2억원에 예비비 7억3,000만원을 추가 편성해 19일부터 위로금을 순차적으로 우선 지급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예기치 못한 재

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재난지원금에 더해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며 "위로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마지막까지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7월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피해조사 결과 피해액 359억(공공시설 235억, 사유시설 124억), 복구액 551억(공공시설 509억, 사유 시설 48억)이 확정됐다.

사유재산은 주택전과 5동, 반과 6동, 침수 192동, 농경지 유실매몰 41.2ha, 농경지침수 256ha, 비닐하우스 유실 7.4ha 등 1,760세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신활력플러스 추진단, 활성화 우수사례로 선정

지역주도 공동체 활성화 부문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성과공유회'에서 활성화 우수사례로 선정돼 지역 주도 공동체 활성화를 널리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3일 전남 나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농촌 재생 대응 혁신 조직으로서의 추진단의 역할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활동, 지역주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립화 운영 모델을 소개했다.

시 신활력플러스 추진단(단장 최재문)은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23년 사회적협동조합 김제농촌활력센터로 법인화하고 액션그룹 간 유기적인 연대·협력을 통한 민간 거



버넌스 구축, 행정협의체와의 민관협력력을 통한 사업 영역 확장 등 지역의 액커조직으로서 주체 육성 및 고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통해 김제의 농촌 재생과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협동조

합 대상에도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성과공유회는 전국 87개 시군(전북 12개)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우수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추진단 및 액션그룹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추진단, 행정, 전문가 등 400여 명이 참여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김제시장은 "추진단의 지립화에 있어서 고유 사업 역할에 따른 지역 내 위치(Position)를 명확히 인식하고, 농촌재생 혁신플랫폼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비즈니스, 사회적경제 방식의 자체 지속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되,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추진단의 노력에 지역적 관심과 격려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영상 촬영 서포터즈단 모집

제12회 와일드앤로컬푸드축제 현장 스냅촬영 ... 29일까지 신청

완주군이 제12회 완주 와일드앤로컬푸드축제 현장을 더욱 풍성하게 담은 영상 촬영 서포터즈단을 모집한다.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영상 촬영 서포터즈단은 10월 4일부터 6일까지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열리는 제12회 완주 와일드앤로컬푸드축제 기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서 자신만의 감성으로 스냅촬영을 하게 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지원 대상은 사진을 좋아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서포터즈단 신청은 완주군 홈페이지 및 군 공식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 간단하게 지원할 수 있다.

서포터즈단 선정 발표가 되면 9월 중으로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 관련 문의를 완주군 관광체육과 관광축제팀(063-290-3976~8)으로 하면 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청렴정책추진단 제3차 회의 개최

부패 취약분야인 '특혜제공 근절·예방' 위한 대책 논의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9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기관장 주관 협의체인 '청렴정책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정책단 제3차 회의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간부 공무원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시 청렴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2024년 종합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화이다.

청렴정책추진단은 정성주 김제시장 이하 부시장, 국단소장, 부서장 등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돼 연초부터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해 온 회의체로, 이번 3차 회의에서는 부패 취약분야인 특혜제공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역할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해 국단소별 대책보고를 실시했다.

특히 특혜제공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역할과제로 건의된 매일 전 직원 대상 자가진단, 풍선 터트리기 챌린지, 익명

성이 보장된 오픈채팅방 신고 채널, 반부패 3무 챌린지와 사업담당자 회피제 등 각 국단소별 환경에 맞는 맞춤형 역할과제를 살펴보면 직원들에게 미칠 효과와 파급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지난 1~2차 회의에서 언급된 갑질 역점 과제의 추진 과정을 모니터링해 특혜제공 근절에 대해서도 진행 상황을 청렴나눔방에 공유하기로 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특혜제공을 근절하고 예방하는 일은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청렴한 조직 이미지를 드높이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공공서비스가 이뤄짐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반으로서 특혜제공 행위 근절을 통해 청렴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더욱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